

“네이버, 매년 연매출 25% R&D 투자… AI 생태계 이끌 것”

통합 콘퍼런스 ‘단 24’

사용자·창작자 위한 AI 도구 넘어
SME·브랜드사 위한 라인업 갖춰

내년 상반기에 ‘네이버 배송’ 도입
주문 후 1시간 내외 배송 신설키로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개하고 향후 서비스와 결합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6년간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ESG 활동에도 나선다.

네이버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DAN) 24’를 열고 연매출 4분의1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하이퍼클로바X 등 네이버 AI 원천기술을 각종 서비스에 밀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온 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적극 펼친다는 것.

네이버는 또 내년 상반기에 주문 한 시간 뒤 배송해주는 ‘지금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쿠팡의 경쟁력인 ‘새벽배송’에 맞설 새로운 무기다.

최수연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매년 매출 20~25% 규모의 연구개발(R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네이버

&D) 투자를 통해 네이버가 국내 AI 생태계를 이끌겠다”며 “네이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이후 1년간 사용자, 판매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위한 수십 건의 생성형AI 프로젝트(제품)들을 테스트한 결과 상용화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네이버는 사용자와 창작자를 위한 AI 도구는 물론 SME(소상공인)와 브랜드사를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보안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B2B

사업 영역까지 매우 폭넓은 생성형 AI 기술 라인업을 갖췄다”며 “이러한 네이버의 기술을 실서비스에 밀착시킬 시기”라고 전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이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AI 투자 의지도 밝혔다.

네이버의 생성형AI 검색도 소개했다. 네이버의 생성형AI 검색은 현재의 통합검색 기술에 AI와 개인화 추천 기술이 결합된 형태다.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제공될 ‘AI 브리핑’도 공개됐다. 네이버는 양질의 문서가 부족한 통태일 키워드나 외국어 키워드들에 대해 우선 적으로 적용해 나가며 정답을 찾는 니즈부터 관심사 탐색을 위한 니즈까지, 네이버 검색결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사용자 검색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결합한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주문 이후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송’, 다음 날 아침 도착하는 ‘새벽배송’ 등 다양한 시간 단위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500만 국민이 모두 다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개인화된 AI 쇼핑 앱을 선보이겠다”며 “새로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순차 도입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숨은 탐색 의도와 맥락, 쇼핑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 정보가 입력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시간 단위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배송’을 도입한다”며 “오늘배송, 내일배송 외에도 주문 후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배송’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네이버의 ESG 경영 활동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 최 대표는 “수천만 사용자와 수백만 SME, 창작자, 광고주의와 상생은 플랫폼업의 본질이자 경쟁력”이라며 지난 8년간 SM E와 창작자를 위해 힘써왔던 ‘프로젝트 꽃’의 성공경험을 AI 생태계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프로젝트 꽃’을 확대한 네이버의 ‘임팩트 프로젝트’는 누구나 AI를 비롯한 네이버의 다양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테크 임팩트, 고유한 아이디어와 상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비즈니스 임팩트,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커뮤니티 임팩트 부문으로 확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혼다, 디자인·연비 갖춘 ‘디오 125’ 출격

이지홍 대표 “저속에서 안정적 토크
발 거치대 편안, 출발·정지 부담 줄여”

유로5+ 환경규제 충족 124cc 스쿠터
맷·펄 그레이 두가지 색상, 269만원

혼다코리아가 여반 스포티 커뮤터 ‘디오 125’를 11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

혼다코리아는 이날 경기도 분당시에 위치한 카페 더 고에서 ‘디오 125’ 출시 행사를 열었다. 혼다코리아는 디오 125 출시로 연 3만 대 규모의 국내 소형 스쿠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직접 시승한 결과 스쿠터 특성상 저속에서 느껴지는 토크가 인상적이었다”며 “편안한 위치에 발 거치대가 마련돼 출발과 정지 상태에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디오 125는 유로5+(EURO5+) 환경규제를 충족하면서 도심과 어울리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채용한 124cc 공랭식 단기통스쿠터다. 우수한 동력 성능은 물론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으며 20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에는 날렵한 디자인의 LED 헤드라이트와 포지션 램프를 채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후면부는 스포티한 테일라이트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주유구를 시트 뒤편에 별도로 적용해 주유를 위해 시트 커버를 여닫을 필요가 없다. 일반 스쿠터는 보통 시트 안쪽에 주유구를 위치해 주유시 시트 커버를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2025년형 디오 125는 124cc 공랭식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가 11일 경기도 분당시 카페 더 고에서 진행된 ‘디오 125’ 출시 행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혼다 디오 125의 주유구 모습. /양성운 기자

단기통 eSP(Honda Enhanced Smart Power)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8.3마력, 최대토크 1.1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연비는 49.5km/l 다. 혼다 eSP 기술은 효율적인 연소와 엔진 마찰 최소화 화로 에너지 출력을 최적화해 조용하고 부드러운 엔진 스타트를 지원하는 스마트 전원 기술이다.

디오 125는 일상적인 커뮤터는 물론 비즈니스 영역까지 라이더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

단 장비를 탑재했다. 프론트에는 12인치 휠에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을 장착해 깔끔하고 세련되면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고 리어엔 10인치 휠에 3단계 조절식 서스펜션을 채용했다. 전후륜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 CBS도 갖췄다.

이 외에도 혼다 스마트 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키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동을 켤 수 있다. 간단한 버튼 조작을 통해 차 위치 알림 기능과 차량의 충격 및 위치 변경을 감지해 알람이 울리는 도난 방지 경보 등 각종 안전편의품목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수납 공간은 18L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새롭게 출시된 디오 125는 안전성, 스포티한 디자인,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라며 “일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오 125 가격은 269만원 (VAT 포함)이며, 컬러는 맷 그레이, 펄 그레이 2가지로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오션, 7135억 LNG 운반선 2척 수주

올해 총 39척… 국내 최대 수주고

한화오션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올해 국내 조선소 중 가장 많은 수주고를 올렸다.

한화오션은 LNG 운반선 2척을 7135억원에 수주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선주사는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 해당 선박은 경남 거제시업장에서 건조해 2027년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4000㎥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한화오션의 천연가스 추진 엔진(ME-GI)과 완전 재액화시스템(FRS)이 탑재돼 기존 LNG 운반선 대비 연료 효율은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 공기순환시스템(ALS),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등 친환경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2척의 옵션 계약도 포함돼 향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현재까지 39척, 78억 7000만 달러(약 11조 원) 상당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 35억 2000만 달러의 두 배를 넘겼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및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19척, 초대형원유운반선 7척, 컨테이너선 6척, 암모니아 운반선 3척, 해양 1기, 특수선 3척 등이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한화오션에 1994년 첫 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3척을 발주한 한화오션의 최대 고객이다. 금액으로는 약 150억 달러로 20조원이 넘는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차세대 6G주파수 특성 연구

LG전자·KAIST 6G연구센터 합동

LG유플러스가 6G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KAIST 6G연구센터와 함께 차세대 6G 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의 개발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표적인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6G연구센터는 LG전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R&D)을 위해 설립한 연구소다.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사용을 위해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파회의(WRC-23)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4.4~4.8기가헤르츠(㎐), 7.125~8.4㎐, 14.8~15.35㎐ 주파수 대역이 6G 후보 주파수로 채택됐다. 또한 2030년 이후의 추가 주파수 할당을 고려하면서 140~160㎐ 대역 범위를 포함한 100㎐ 이상의 광대역 후보 대상 주파수가 지정됐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 KAIST 6G 연구센터는 이들 후보 대역 중 7~15㎐(Upper-mid)와 140~160㎐(Sub-THz) 대역을 선정해 실험을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